

중국, 외국 석유기업 인수 적극화

Sinochem, 러시아기업 인수 마무리 ... 中信도 Nations Energy 인수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캐나다의 석유기업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시장점유율 2위인 Sinochem은 총 30억달러(약 2조8544억원)를 투자해 영국 BP와 러시아가 공동 설립한 TNK-BP 산하 우드무르트네프트 인수작업을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또 금융전문기업인 中信그룹도 22억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석유기업인 Nations Energy 인수를 추진해 역시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Sinochem과 中信그룹의 인수금액은 52억달러로 2005년 중국 최대 석유기업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가 42억달러를 투자해 카자흐스탄의 PK석유를 인수한 이래 최대이다.

中信그룹은 주로 금융과 정보통신, 부동산 분야에 주식매입 방식으로 투자하는 기업으로, 석유기업 인수는 전문 석유기업이 아닌 금융전문기업이 에너지 분야에 적극 진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Nations Energy는 매장량이 4억배럴에 이르는 카자흐스탄 유전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 하루 평균 4만10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다.

한편,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는 영국 천연가스기업인 BG(British Gas)와 중국 남해 Huinan 성 동남지역과 Zhejiang 어구에 위치한 3개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CNOOC 傅成玉 총경리는 “양사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중국과 영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외국기업들과 유전개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공동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중국의 원유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베이징=연합뉴스 포민 찬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12>